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정은성 지음



표지 탐색하기

※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을 보고,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그때 동굴을 뛰어나간 범은 어떻게 되었을까?"

단군신화와 작가의 상상력이 만나 펼쳐지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

사람이 되려고 동굴에 들어간 곰과 범 이야기 단군신화. 곰은 웅녀가 되었지만, 100일을 참지 못하고 동굴을 뛰어나온 범은 어떻게 되었을까? 곰이 아닌 범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이면서 정의로움과 화합의 가치를 잘 살려낸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① '단군 신화'에서 사람이 되려고 동굴에 들어간 '곰'과 '범'은 각각 어떻게 되었나요?

⇒

② 윗글을 바탕으로 예상해 보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와 그 속에 담겨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정은성 지음



어휘력 쑥쑥 키우기

1) 다음 밑줄 친 낱말의 기본형과 그 뜻을 알맞게 짝 지으세요.

- “저 사람들은 마땅한가? 누가 그걸 판가름한다는 거지?”
- 아이는 하루 종일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궁금답답하여 가만히 있기 힘들었다.
- 곁곁은 가무러친 개치 곁에 앉아 땀을 닦았다.
- 먼 데 버드나무는 누렇게 바래 가는 잎을 흐늘쩍댔다.
- “뭐 기꺼이 받아들이마. 그럼 너도 하늘사람인 네 아옴들이 내린 야멸친 하늘 뜻을 받아들이지 그러니?”

판가름하다

궁금답답하다

가무러치다

흐늘쩍대다

야멸치다

-
-
-
-
-

① 태도가 차고 여무지다.

② 사정을 몰라서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③ 얼마 동안 정신을 잃고 죽은 사람처럼 되다.

④ 매우 둔하고 느리게 자꾸 흔들리거나 움직이다.

⑤ 사실의 옳고 그름이나 어떤 대상의 나옴과 못함, 가능성 따위를 판단하여 가르다.

2) 제시된 글의 문맥과 낱말 뜻을 참고하여, 빈칸 ㉠, ㉡에 각각 들어갈 말을 쓰세요.

• ㉠□□□□ 엮어 고깔 모양 얼굴 가리개를 만들었다. 아이 얼굴이 씩우고 허리엔 끈을 단단히 둘러 묶었다. 거기에 빙 둘러 가지를 끼웠다.

• “어서 잡아. 그쪽으로 가잖아! 화살을 쏘!”

잠결에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은 ㉡□□□□ 허둥댔다.

㉠□□□□ : 가는 것이 이리저리 뒤섞이어 얽힌 모양.

㉡□□□□ :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양.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정은성 지음



어휘력 쑥쑥 키우기

1) 제시된 문장의 문맥과 낱말 뜻을 참고할 때, 각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 ① “이곳이 처음이라 잘 몰라 그런 걸, 뭘 그리 ()를 하나.”
- ② 질긴 싸움에 훌쩍 ()이 지났다. 개치는 가쁜 숨을 내쉬며 허덕거렸다.
- ③ “그 틀은 우리가 하늘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해 줍니다. 틀을 벗어나면 () 땅불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 ④ 결결은 갈대에 다가갔다. 아이에게 들리도록 목청껏 ()을 했다.
- ⑤ 결결은 치밀어 오르는 ()을 삭혔다.
“목숨을 미끼로 쓰다니! 이 무슨 본데없는 짓인가!”

<보기>

- 섰 : 불끈 일어나는 감정. • 한것 : 한나절의 반. 반나절.
- 지청구 :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
- 떨꺼둥이 : 의지하고 지내던 곳에서 가진 것 없이 쫓겨난 사람.
- 강다짐 : 이미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틀림이 없음을 매우 단단히 강조하여 확인함.

2) 밑줄 친 부분 ㉠~㉣에 쓰인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써 보세요.

- 다시 눈이 내렸다. 제법 쌓여 걸으면 ㉠자박거렸다. 죽어 쓰러진 자작나무를 만났다. 개치는 익은 솜씨로 껍질을 벗겼다.
- 하늘 가린 나뭇가지 위에서 ㉡괴괴한 바람이 일어났다. 걷잡을 수 없이 몸집을 불렀다. 갑자기 휘돌아 내렸다.

- 자박거리다 :
- 괴괴하다 :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정은성 지음



만남_첫 숨결 / 알아 가기

※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맘에 들어. 겁쟁이는 영 거추장스러워서. 자, 둘은 내려봐. 힘이라곤 없어 보이는구먼. 그러다 네 머리에 떨어뜨리겠다. 난 사람을 먹지는 않아. 더구나 너같이 맛 없어 보이는 녀석은. 우리 찬찬히 이야기나 해 볼까?"

결결은 아이와 좀 떨어진 바위에 걸터앉았다. 아이는 돌을 꼭 쥐고 있었다.

"넌 어디서 왔니? 뭘 하고 있었지?"

아이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결결이 물고기를 잡으러 자리를 뒀을 때도 달아나지는 않았다. 사실 갈 곳이 없었다. 결결은 물고기를 열 마리나 잡아 왔다.

"물고기 형제들, 고맙네. 형제들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살겠네."

(나) "그러니까 네 엄마는 동생을 낳으려고 이곳에 왔다가, 뭐라고 했지? 땅불이들? 그들을 피해 강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엄마를 놓쳤다는 거지?"

아이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짧게 고덕었다. 결결이 말을 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끔찍한 일이지. 헤어질 시간은 늘 부족하니까. 죽음은 그만큼 너그럽지도 않고, 그럼 네 엄마와 동생은 죽었는데 넌 왜 가온누리에 가려는 거니?" / 아이는 벌떡 일어났다.

"하늘사람은 죽지 않아. 엄마는 거기서 하늘 가기를 기다리고 있어."

1) (가)~(나)에서 '결결'과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가) : 아이가 돌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고, _____



(나) : 아이는 엄마와 동생을 낳으려고 이곳에 왔고, _____

2) (나)에서 '아이'가 '엄마'와 '동생'은 죽었는데 '가온누리'에 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정은성 지음



하늘사람_형제들 / 발각된 아이

※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이리 가면 되는 거요?"

여자가 두리번거렸다. 아기를 꼭 끌어안고 힘겹게 일어섰다.

"우리 아음들이 있는 곳으로 같이 데려갈 수는 없어요."

"나 원! 거치적거리는 짐짝 취급이군. 혼자 갈 수 있으면 가시오. 난 나대로 갈 테니. 그것까지 참견할 일은 아니잖소?" / 여자 얼굴은 그림자보다 더 어두웠다.

"나와 있었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줘요."

(나) "탈 대신 얼굴을 가릴 방법을 찾을 게요."

감풀등은 자기가 걸친 나뭇가지와 잎을 몇 개 빼냈다. 얼기설기 엮어 고깔 모양 얼굴 가리개를 만들었다. 아이 얼굴에 씌우고 허리엔 끈을 단단히 둘러 묶었다. 거기에 빙 둘러 가지를 끼웠다. 입에 자갈돌을 물리며 다잡았다.

"검터숲을 지나는 동안엔 넌 스스로를 나무인 듯 여겨야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걸어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면 안 돼. 그럼 깊이 잠든 숲을 깨우게 되니까. 숲이 깨어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 목숨을 앗아야 다시 잠들지. 그러니 입을 꼭 다물어야 한다. 알겠지?"

1) (가)에서 '여자'가 '결결'을 거치적거리는 짐짝 취급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나)에서 '감풀등'이 '아이'에게 '검터숲'을 지나는 동안에는 스스로를 나무인 듯 여겨야 한다고 말한 이유와 '검터숲'의 의미를 서술해 보세요.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정은성 지음



하늘사람_아름들 / 어울림

※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름들이 뭐라고 해도 난 하늘사람이야. 엄마를 만나면, 그래 엄마를 만나면 이름을 얻게 될걸! 감풀등님도 내가 이름을 얻게 될 거라고 했잖아. 두고봐, 꼭 그렇게 될 거야.' / 감우듬지가 말했다. / "앞으로 나와라."

아이는 덜 마른 진흙처럼 무너져 내리는 발을 떼었다.

'난 쫓겨나는 게 아니야. 엄마를 찾으러 떠나는 거지. 꼭 가고 말 거야.'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차마 사람들을 마주보지는 못했다. 탈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감우듬지가 입을 열었다. / "이 아이는 이제 하늘사람이 아니나니....."

(나) "좋은 이름이 떠올랐어. 햇귀 어때? 힘차고 아름다운 아침 햇살, 햇귀! 썩 멋진 이름이지? 너 주기 좀 아깝다만." / 아이가 통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누가 달랬나?" / "그래! 이제야 너 같다. 며칠 만에 들으니 네 목소리도 곱게 느껴지는데. 아깝긴 하다만 난 이미 멋진 이름이 있으니까 그냥 너 줄게."

"맘대로 해요. 엄마를 만나면 난 하늘이름을 얻을 테니까"

"그렇겠지. 그때까지 널 햇귀라고 부르마. 이것도 마저 먹어."

아이는 잠깐 망설였다. 힐끔 곁곁을 보았다. 곁곁이 빙긋 웃었다.

1) (가)~(나)에 나타난 '아이'의 생각과 일어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가) : 아이는 아름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은 하늘사람이라고 생각했고, _____



(나) : 곁곁이 아이에게 햇귀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고, _____

2) (가)에서 '아름들'이 '아이'를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정은성 지음



땅불이_미끼와 사냥꾼 / 덧

※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알려 주면 내게 뭘 줄 거지?"

결결은 우두쇠에게 주먹을 먹이고 싶은 미움과 어서 달램수를 찾아야 한다는 조바심에 몸을 떨었다. 우두쇠는 떨어진 칼을 주워들었다. 눈을 내리깔고 빈정댔다.

"없어? 내가 찾아보지. 아까 줄범을 저리 만든 게 너라고 했던가? 모레까지 줄범 한 마리를 잡아 와라." / "알겠다. 여기로 오면 되는 거냐?"

"그토록 쉽게? 그럼 두 마리로 하지. 숨은 붙여 놔야 해. 개머리산으로 가져와. 셋 별이 떠오르고 돈을별이 비릇되는 곳으로. 하늘떨거지들은 내가 데려가마."

결결이 햇귀를 보았다. / "기다려. 꼭 갈게." / 결결은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나) 범은 공중제비를 돌았다. 결결로 돌아왔다. 숨을 헐떡였다. 화살이 꽂혔던 자리에 피가 올라왔다. 햇귀가 울먹였다. / '피가!' / "뭇을 거야. 잠깐만 쉬면 돼."

결결은 단지를 들고 개치에게 다가갔다. 싸맷던 느릅나무 껍질을 헤치고 다친 자리를 드러냈다. 삼가루를 조금 집어내 생채기에 뿌렸다. 햇귀는 어안이 막혔다. 놀라 결결을 보았다. / "땅불이 것을!"

"땅불이든 하늘사람이든 삼을 가르고 태어난 건 마찬가지야. 얼력은 아픈 걸 낫게 하는 남다른 감냥을 지녔지. 개치에게도 도움이 될 게다."

1) (가)에서 '우두쇠'가 '결결'에게 알려 주는 대가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

2) (나)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① 결결은 단지를 들고 개치에게 다가
가 _____



② 햇귀가 놀라며 어안이 막혀하자 ____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정은성 지음



길_길벗 / 매듭

※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얼력은 어찌 되었는가?" / "잠겼다. 갇혔다."

"끝내 얼력마저! 얼른 말해. 그 애가 어디 있는지!"

바람은 회오리가 되어 땅에 닿았다. 결결을 부추겼다.

"내 안으로 오라. 지난날을 보여 주겠다. 너와 내가 걸어온."

결결은 망설였다. 발을 옮겼다. 회오리에 들어섰다. 바람은 사뿐히 결결을 들어 올렸다. 막 숲에 들어선 햇귀가 외쳤다. /

"안 돼!" / 햇귀는 결결 발목을 잡았다. 바람은 돌을 휘감아 올렸다. 데거칠게 빙빙 맴돌았다. 결결과 햇귀는 바람이 지나온 길을 되윽었다. 바람이 돌을 이끌어 그 길을 거슬러 갔다.

(나) "마음에 매듭을 짓지 마. 엉키면 풀어야지. 마구 당기면 어쩌니!"

"그럼 개치 오빠 말대로 가온누리에 가면 다 풀린다는 말이에요?"

"글쎄다. 어차피 사람 목숨은 긴 줄 같은 거야. 삶이란 그 줄을 잡고 이리저리 헤매는 길과 같지. 목숨 줄 길이야 사람마다 다르다만 엉기고 얽히는 건 마찬가지야. 삶을 끝내는 날이 오면 그 줄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매듭을 다 풀어야 하거든, 그래서 매듭이 많으면 그만큼 힘든 게야. 풀리지 않으면 끊어서 이어야 하니까. 그 줄은 다 거둬야 새로 떠날 수 있고."

1) (가)에서 땅에 닿았던 '검터숲의 바람'이 '결결'을 부추겼던 이유를 파악해 보세요.

⇒

2) (나)에 나타난 '결결'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① 어차피 사람 목숨은 긴 줄 같은 것이고, _____



② 삶을 끝내는 날이 오면 그 줄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_____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정은성 지음



마당_대두리판 / 마주보기

※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여기가 가온누리예요?" / "더 올라야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누리가 기쁨을 나누는 흰마리뫼 봉우리에 서면 가없이 커다란 못, 가온누리를 볼 수 있어. 가라. 난 얼력을 찾을 테니." / 결결은 햇불로 굴을 밝혔다. 개치가 투덜댔다.

"참 고약한 버릇이야. 늘 나아서 잘난 체니. 혼자 어찌려고, 차라리 도와달라고 하지."

"찾는 게 다르잖나. 내 매듭은 내가 풀어야지. 게다가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릴지도 모르고. 그런 곳에 데려가긴 싫으이."

(나) "하늘이름을 받으려고 가온누리까지 왔어요. 괴롭고 힘들었지만 여기서 엄마를 만날 거라 믿었어요. 그럼 하늘이름도 받고." / 꿀꺽 눈물을 삼켰다.

"이젠 괜찮아요. 저도 이름이 있으니까. 햇귀! 그게 제 이름이에요. 엄마도 좋다고 하셨어요. 하늘이름이 아니니까 부질없다고 하실 거죠? 하늘사람과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맞맺음은 끝나지 않아요. 제가 끊지 않았으니까! 전 큰어른들을 제 아음으로 생각할 거예요. 절 쫓아낸 아음들, 가온누리에 계신다는 아음들까지, 모두 다 제 아음이에요."

1) (가)에 나타난 '가온누리'는 무엇인지, '결결'의 매듭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2) (나)에서 '햇귀'는 자신도 이름이 있으니까 괜찮다며 모두가 자신의 아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정은성 지음



정답과 해설

1쪽	1) (예)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고, 개천절이 생각한다. 2) (예)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휘날리고 얼굴 모양의 방패로 몸을 가리고 있는 원시인 아이와 호랑이가 무표정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 뒤에 백두산 천지가 있다. 3) ① 꿈은 옹녀가 되었지만, 범은 100일을 참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왔음 / ② 꿈이 아닌 범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정의로움과 화합의 가치를 잘 살려낸 이야기
2쪽	1) 판가름하다-⑤, 궁금답답하다-②, 가무러치다-③, 흐늘쩍대다-④, 야멸치다-① 2) ㉠ : 열기설기, ㉡ : 갈팡질팡
3쪽	1) ① 지청구, ② 한껏, ③ 떨꺼둥이, ④ 강다짐, ⑤ 섰② 2) • 자박거리다 : 가볍게 발소리를 내면서 자꾸 가만가만 걷다. • 괴괴하다 : 정상적이지 않고 별나며 괴상하다.
4쪽	1) (가) : 결결은 이야기나 해 보자며 질문했지만 아이가 입을 열지 않자 물고기를 잡으러 자리를 떴음 / (나) : 땅불이들을 피해 강으로 들어갔다가 엄마를 놓쳐서 가온누리에 가는 길이었음 2) 가온누리에서 하늘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5쪽	1) 여자의 아음들이 있는 곳으로 같이 데려갈 수는 없어서 2) (예) 감풀 등은 얼굴 가리개로 아이의 얼굴을 가렸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걸어 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했다. 깊이 잠든 숲을 깨우게 되면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검터숲은 두려운 존재였다.
6쪽	1) (가) : 아음들에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찾으러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음 (나) : 아이는 엄마를 만나면 하늘이름을 얻을 테니까 맘대로 하라고 말했음 2) 아이는 이제 하늘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7쪽	1) 모레까지 숨이 붙어있는 줄범 두 마리를 잡아 와서 개머리산으로 가져올 것 2) ① : 다친 자리를 드러내고, 삼가루를 조금 집어내 생채기에 뿌렸음 ② : 땅불이든 하늘사람이든 삼을 가르고 태어난 것은 마찬가지로 말했음
8쪽	1) 검터숲의 바람과 결결이 걸어온 지난날을 보여 주기 위해서 2) ① : 삶이란 그 줄을 잡고 이리저리 헤매는 길과 같고, 목숨 줄 길이야 사람마다 다르지만 엉기고 얽히는 것은 마찬가지로임 / ② : 매듭이 많으면 그만큼 힘들고, 풀리지 않으면 끊어서 이어야 하고, 그 줄을 다 거둬야 새로 떠날 수 있음
9쪽	1) 흰마리피 봉우리에서 볼 수 있는 가없이 커다란 못 / 얼력을 찾는 것 2) (예) 햇귀는 가온누리에서 하늘이름을 받지 않아도 이름이 있으니 괜찮다고 했다. 또한 큰어른들과 자신을 쫓아낸 아음들, 가온누리의 아음들까지 모두 자신의 아음이라고 했다. 모든 아음들을 포용하는 모습에서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이 느껴졌다.